

에코의 '백과사전' 개념 연구*

김운찬

1. 의미론의 화두

의미에 대한 성찰은 철학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전 철학자들에서 시작하여 중세 스콜라 철학을 거쳐 현대의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를 구축하고, 의미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와 학문의 과학적 방법론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되었다. 크게 보아 의미에 대한 고찰은 철학과 언어학의 두 갈래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미의 의미』라는 오그든 Ogden과 리처즈 Richards의 저술(1923), 또는 같은 제목으로 된 퍼트남 H. Putnam의 논리적 고찰(1975)에서 예시적으로 보이듯이, '의미'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혼란은 모든 의미론적 논의의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논리철학과 언어학 및 기호학의 범위에서 제각기 상이한 배경 아래 제시된 의미 이론들이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결국 그 어떠한 이론이나 모델도 의미의 본질 및 그 구성 방식에 대해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공모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만족할 만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의미는 여전히 어떤 붙잡을 수 없는 실체처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의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용어들의 홍수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영어의 'sense'와 'meaning'에 해당하는 각 언어의 용어들¹⁾을 비롯하여 프레게의 'Sinn'과 'Bedeutung,' 소쉬르의 기의(記意)signifié, 엘름슬레우의 내용, 외시와 내시 denotazione/connotazione,²⁾ 외연과 내포 estensione/intensione, 또한 라틴어에서 이끌어낸 'denotatum'과 'significatum'에 이르는 많은 용어들은 마치 한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의미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론은 '메두사의 머리'를 가진 괴물인 셈이다.

그렇다면 기호학의 범위 안에서 의미(또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호학에서 다루는 의미론은 언어학적 의미론과 어떻게 다른가? 이에 대해 명백한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기호학 자체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여전히 논의중인 비교적 젊은 학문인 데다가 학자들마다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마로네(Marrone, 1994: 63)에 의하면, 철학 및 언어학적 의미론과는 달리 기호학적 의미론은 “한편으로는 의미에 대한 연구를 기호(학)적 구조들의 내부 영역으로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적 담론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담론, 특히 전통적으로 화용론에서 다루었던 모든 외연적 현상들까지 고찰함으로써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이중적인 작업을 지향한

1) 우리말에서는 'sense'와 'meaning' 각각에 해당하는 차별적 용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뚜렷한 구분 없이 '의미'로 옮겨지고 있다. 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일정한 전체 및 유보 조건들과 함께, '뜻' / '의미' 또는 소쉬르의 'signifié'에 대한 번역어를 활용하여 '의미' / '기의'의 쌍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어학자들과 기호학자들 사이에 용어 정립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2) 이 용어의 쌍에 대한 우리말 번역어 역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뒤에 나오는 '외연' / '내포'의 쌍과 혼동되고 때로는 동일하게 쓰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운찬(1998)의 각주 12 및 24를 참조.

다. 그러나 '기호(학)적 구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에 대한 정의(또는 통일적인 합의)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오해의 여지가 남는다. 분명한 것은 철학 및 언어학적 의미론과는 달리 비언어적 표현들의 의미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분명 의미 영역의 확장이며, 그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움베르토 에코 Umberto Eco(1932~)의 백과사전 개념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일반 기호학이라는 방대한 구상이 "의미화 및/또는 소통화의 모든 현상에 대한 통일적 연구"(Eco, 1975: 13)를 지향한다면, 그리하여 모든 문화 현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면, 그 안에서 다루어야 할 의미의 생성 및 그 해석 과정은 철학이나 언어학의 의미론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전망을 필요로 한다. 의미는 모든 기호 현상의 분석에 있어서 회피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의 지적대로 "미리 어떤 의미로 채우지 않으면서 하나의 기표 형식을 정의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되고 환상적인 것이며, 따라서 모든 절대적 형식주의는 위장된 내용주의와 다름없다. [……] 하나의 해석, 그러니까 의미 충만을 이미 함축하지 않는, 관련 기표 측면들에 대한 분석은 없다"(1978: 28). 그렇다고 백과사전 개념이 기호학적 의미론의 최종적인 해결책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에코의 기호학 이론 전반에 있어서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개념들 중의 하나며, 특히 '해석 기호학'으로 일컬어지는 그의 이론을 가름짓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2. 백과사전 개념의 등장

에코가 백과사전 개념을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한 것은 1975년에 출판된 『일반 기호학 논고』(이하 『논고』)에서였다. 물론 기호학적 의미(또는 내용)에 관한 에코의 이론적 탐색이 『논고』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

다. 1971년에 출판된 『내용의 형식들』에서 이미 그는 의미의 조직 과정 및 그 재현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해결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 엘름슬레우의 이론을 발판으로 삼은 그는 내용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켜 “소통화가 가능한 내용들의 우주”(1971: 9)로서의 의미senso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논고』는 바로 그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의미에 관한 논의는 제2부 ‘코드 이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쨌든 『논고』에서 에코는 다분히 엘름슬레우의 관념에 따라 기호를, 표현의 단면과 내용의 단면이 상호 관계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 정의하였다(그는 ‘기호’라는 용어 대신에 ‘기호 기능funzione segnica’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기호와 비[非]기호를 구별하고 또한 ‘기호의 순진한 개념’에서 비롯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1975: 14~15]). 여기에서 한 기호적 표현에 의해 운반되는 내용, 즉 그것의 의미가 어떻게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바로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그는 기존의 의미 모델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서 백과사전의 개념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는 기존의 의미론들 중에서 특히 카츠Katz와 포도어Fodor에 의해 공식화된 모델(소위 ‘KF 모델’)을 비판하면서, 그것은 “이상적인 화자의 이상적인 역량”³⁾을 재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생한 모순투성이의 사회화된 역량을 설명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전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ibid.*, 143). 이러한 비판은 본질적으로 그가 의미를 ‘문화적 단위’로 규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ibid.*, 98~100). 어느 한 기호의 내용, 즉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3) ‘competenza’ 영어의 competence/performance의 쌍에서 나온 용어로 우리말에서는 ‘(언어) 능력’으로 많이 번역되고 있으나, 기호학의 범위 안에서, 특히 그레마스의 이론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potere’(불어의 ‘pouvoir’)와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역량’으로 옮기고자 한다.

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들에 상응하여 유동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소쉬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표와 기의가 선험적으로 1 : 1 대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주 단순한 기호적 표현(가령 하나의 낱말이나 손짓)도 나름대로 고유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KF 모델은 기호의 문화적 성격을 배제하고 제한된 숫자의 이상적인 ‘의미 성분’ 또는 ‘의미 특성’들의 조합으로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의미소 semema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재현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성분 분석 이론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모델로서 에코는 ‘재공식화된 의미 모델 Modello Semantico Riformulato(MSR)’을 제시하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습화되고 코드화된 내시 의미들 connotazioni뿐만 아니라 모든 문맥⁴⁾적 선택과 상황적 선택들까지 고려하고자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한 의미소의 조직은 표현의 단면에 속하는 통사적 지표들에 따라 일정한 외시 의미 및 그에 상응하는 내시 의미들을 포괄하고, 거기에서 문맥적 선택과 상황적 선택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고유의 내용을 실현한다. 따라서 아주 소박한 하나의 의미소일지라도 수많은 요인들이 개입된 복잡한 관계들의 그물 안에서 복잡하게 얽힌 경로들을 거치면서 거대하고 방대한 백과사전의 의미 우주와 연결될 수도 있다(*ibid.*, 161~63).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MSR은 ‘문화적 단위들의 그물’로 환원된다. 그러나 이 MSR에도 문제는 남아 있다. “성분 나무에 어떠한 문화 단위들이 등록되어 있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그것은 “한 의미소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된 의미 단위가 또 다시 분석되어야 할 의미소”로 되어버리는(*ibid.*, 173) 기호 자체의 속성, 말하자면 ‘무한한 기호능

4) ‘contesto.’ 『논고』에서 에코는 contesto의 범위를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근의 텍스트 이론들에서 사용되는 공텍스트 co-testo에 가깝다. 따라서 에코의 의도를 반영하여 이 부분에서는 발화의 ‘상황 circostanza’와 구별되는 ‘문맥’이라는 말로 옮겼으나, 다른 곳에서는 ‘맥락’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이 용어들에 대한 에코의 설명은 (1979: 16; 1990: 268) 참조.

semiosi illimitata'의 메커니즘 때문이다. 특히 퍼스의 해석소interpretante 개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에코의 기호 관념은 경직된 존재론적 구조 개념⁵⁾과는 처음부터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저절로 전개되는 기호능”(ibid., 104)의 무한한 역행 또는 진행 작용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의미 성분들의 나무에 등록될 수 있는 모든 문화 단위들을 총괄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모델로 에코는 퀴리언Quillian의 모델(소위 ‘Q 모델’)을 제안한다. 이것은 수많은 의미 특성들의 그물을 단순한 대립 구조 및 계층 관계로 재현하는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나무형 분석 모델이 아니라, 명백하게 입체적이고 n차원적인 n-dimensionale 모델이 되고자 한다. 이것은 때로는 서로 모순적인 수많은 의미 단위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들을 통해 서로 연결되면서 언제든지 새로운 의미의 그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Q 모델은 언어적 창조성의 모델”(ibid., 177)이라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모든 문화적 단위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방대한 백과사전의 우주 안에서 의미 성분들은 거의 무한대로(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서로 결합될 수 있다.

분명 이러한 모델은 주어진 한 표현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의미 특성들을 거의 무한대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백과사전은 언어의 내적 구조나 관계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언어 외적 요소들까지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내용으로서의 의미⁶⁾ 우주를 상정하고 있다. 에코의 백과사전 개념은 “의미화 체계 또는 코드의 의미 개념의 화용론적 확장”으로서 탄생하였던 것이다(Cosenza, 1992: 115). 그리고 그것은 ‘사

5) 에코는 퍼스의 기호학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프랑스 구조주의의 일부 경직된 구조 관념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는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부재의 구조』(1968)다.

6) Marrone는 기호학의 의미론적 성찰의 첫 전환점을 ‘의미’라는 용어에서 ‘내용’이라는 용어로 이행기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영화, 문학, 건축, 음악, 미술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소위 ‘특수 기호학’들이, ‘의미’가 아니라, 각자 고유의 구조에 내재적인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바르트는 『모드의 체계』에서 패션의 의미를, 말 언어linguaggio verbale 위에 기생적으로 설정되는 의상 코드의 특수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Marrone, 1992: 64~72).

전'적 의미 영역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무한하게 '열려 있는' 의미 우주를 지향한다.

3. 사전 대 백과사전

『논고』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백과사전 개념은 에코의 이후 작업에서 더욱 정교해졌는데 1984년에 나온 『기호학과 언어 철학』이 그 결과들 중의 하나다. 이 책은 원래 1976년에서 1980년 사이에 『에이나우디 백과사전 *Enciclopedia Einaudi*』의 다섯 항목에 대해 쓴 글들을 재정리하여 출판한 것이다. 따라서 '(백과)사전'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에코는 각 논쟁적 개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백과사전 개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분명하고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사전 대 백과사전」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그는 백과사전 개념이 사전과 대립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에코는 사전적 정의의 한계를 비판하는데, “사전은 단지 언어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사전이 내포적으로 기술하는 용어들의 우발적인 지시물들을 알아보기 위한 지침들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1984: 78). 여기에서 지시물의 확인이란 소위 외연적 의미(또는 외시 의미)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것은 『논고』에서 KF 모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것이다. 카츠와 포도어는 구체적인 지시물들의 확인을 위한 방편으로서 '구별소 *distinguisher*'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모델에 도입하였는데, 에코는 이 구별소 개념이 불순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1975: 147~51). 말하자면 내포적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연적 해결책을 내포적 이론 안에 도입시켰으며, 그 결과 내포적 기준과 외연적 기준이 불순하게 혼합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언어 내적 의미, 즉 '언어적 인식'만을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 사전에 의해서는 구체적인

한 텍스트에서 사용된 어떤 어휘의 외연적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이것은 의미 성분들의 조직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려는 나무형 모델의 궁극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문제는 소위 '언어적 인식(지식)'과 '세계의 인식'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 있다. 언어 내적인 관계들에 입각한 의미론자들은 대개의 경우 인간 개인들의 세계에 대한 상이한 인식이나 지식들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가령 직접적인 삶과 경험의 주체인 개인의 인지적 지식들이 사전적으로 등록된 인식 체계와 어긋날 경우 그것은 단지 예외적이고 특이한 *idiosyncratic* 현상으로 간주될 뿐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본 의미들 *primitivi*'이라 일컬어지는 기본적인 최소 의미 단위들을 제한된 숫자로 한정해야만 그 안에서 조합되는 의미소의 조직 방식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근본 의미들이란 무엇인가? 그것들 역시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지적 경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근본적 의미 단위들의 범위가 모든 구성원들에 의한 인식의 '공통 분모'로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인지적 지식들의 범주화 또는 세계의 경험들에 대한 자의적인 재단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순수한 언어적 지식과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인식 사이에 명백한 경계선을 긋기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바로 기존의 성분 분석 방법이 드러내는 한계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전통적인 성분 분석의 나무는 모든 의미 특성들을 기록하지 못한다. 예코에 의하면 성분 분석 나무의 기원은 이미 기원후 3세기에 활동했던 포르피리우스 Porphyrius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포르피리우스의 범주들과 정의(定義)의 문제에 대한 성찰들은 『이사고게 *Isagoge*』를 통하여 중세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종(種) *species* 개념과 유(類) *genus* 개념을 활용한 나무형의 계층적 조직 방법으로 범주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예코는 그 포르피리우스의 나무가 단지 '차이'들의 나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그 차이들이란 무수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 더구나 개개인마다 상이한 경험적 인식들의 차이까지 자체 안에 포함시킬 경우 그 나무의 조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고 방대해진다. 따라서 어떻게 구성되든 궁극적으로는 그 나무 자체가 “폭발하여 차이들의 먼지, 우연들의 무한한 소용돌이, 계층화할 수 없는 특성들 *qualia*의 그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1984: 105).

여기에서 에코는 나무형 성분 분석 방법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의 비판은 의미 성분들의 규모를 제한된 숫자로 확정할 수 없다는 데 집중되어 있다. 사전의 토대가 되는 “근본 의미들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는데, “세계의 인식과는 무관한 언어적 역량”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모순이라는 주장이다(*ibid.*, 81). 결국 언어적 인식과 세계의 인식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의미 성분들의 총체적인 우주는 무한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가능한 의미 특성들을 무제한적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우주를 재현할 수 있는 모델은 사전보다는 백과사전에 가깝다. 그렇다면 사전과 백과사전 사이의 차이는 질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순전히 양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Violi, 1997: 240). 만약 의미 특성들 사이의 구별이 사라진다면, 그리하여 단순한 양적인 차이로 결정된다면, 결국 사전이라는 것도 하나의 “위장된 백과사전”에 불과할 것이다(Eco, 1984: 106). 그렇지만 구태여 질적인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면, “어휘적 층위에서 외시와 내시 사이의 차이가 사전과 백과사전 사이의 차이를 재생한다”(*ibid.*, 133)고 말할 수 있으리라.

어쨌든 모든 우연적 사실들까지 기록한다면 백과사전의 규모는 엄청나게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에코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도서관들의 도서관으로 상상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각각의 도서관은 동굴 벽화들에서 영화 필름 보관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록된 모든 비언어적 정보의 보관소”가 된다(1984: 109). 그렇다면 그 엄청난 정보들의 미궁, 차이들의 무수한 먼지 속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의미

는 어떻게 조직되는가? 바로 여기에서 Q 모델의 탄력적인 조직 방식이 적용된다. 한 의미소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수많은 내적 및 외적 요인들에 의해 실로 무한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유의 의미 특성들을 조직함으로써 고유의 내용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맥락 속에 삽입된 용어를 추론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에코의 표현에 따르면 “이 모델은 ‘백과사전 규모’의 ‘지침 의미론 *semantica a istruzione*’의 관념”에 접근한다(1984: 128). 예를 들어 한 용어는 고유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또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맥락 속에서 그것이 사용된 내용을 수신자로 하여금 파악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범주어 *sincategorematico*의 의미는 그것의 가능한 맥락적 삽입을 위한 지침들의 덩어리(연쇄·체계)다”(ibid., 34).

이것은 특히 에코의 기호 개념과 직결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기호는 무엇보다도 추론의 대상이다. 기호학의 역사적 뿌리찾기를 좋아하는 에코는⁷⁾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전 철학자들의 기호 관념들을 재검토하면서, 기호의 본질적 성격을 새로이 규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고전 철학자들에 의한 “원래의 기호 관념은 등식(等式), 코드에 의해 설정된 고정적 상관 관계, 표현과 내용 사이의 등가(等價)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추론, 해석, 기호능의 역동성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1984: xv). 그리고 이것은 퍼스의 기호 관념과 일치한다. 퍼스에 의하면 기호는 단순히 다른 무엇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표현과 내용 사이에 $p \equiv q$ 라는 동일성 *identità*의 원리에 입각한 고정적 기호 관념이 아니라, “만약 p라면, 그렇다면 q”라는 식으로 추론⁸⁾을 가능케 하는 장치로서의 기호 관념이다. “기호는 해석을 위한 지

7) 기호학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학문이라는 일반적 견해를 반박하려는 듯이, 에코는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기호에 대한 다양한 성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역사적 탐색의 결과는 『기호학과 언어 철학』(1984)을 비롯하여, 『해석의 한계』(1991), 『유럽 문화에 있어 완벽한 언어의 탐구』(1993) 등에서 발견된다.

침이며, 최초의 자극에서 출발하여 아주 먼 추론적 결론들로 인도하는 메커니즘이다”(ibid., 22). 그리고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기호학의 연구 대상은 기호 그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호능의 역동적 메커니즘으로 확장 또는 이동될 수 있을 것이다.

추론적 장치로서의 기호는 무수한 개별적 사실들과 연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최소한 외연적으로는 언제든지 새로운 의미 특성들로 충만해질 수 있다. 에코의 백과사전은 바로 이러한 것들까지 포괄함으로써 “비록 무제한적이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는 열려 있는 사실들의 총체”(Violi, 1997: 87)가 된다. 지극히 제한적인 말뜻으로 보자면 백과사전이란 주어진 한 시대의 한 문화를 특징짓는 지식들과 인식들의 총체며, 따라서 용어들의 의미적 재현 안에 포함된 것보다는 훨씬 방대한 체계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백과사전 개념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거의 무한하게 열려 있는 백과사전은 어떻게 기술될 수 있을 것인가? 백과사전이 “모든 해석들의 기록된 총체”로 이루어져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난 그 모든 정보와 지식, 해석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백과사전이 현실적으로 기술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무한하고도 다양한 해석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서로 모순적인 해석들이 공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들이 유입됨으로써 언제나 새로이 재구성되어야 하며, 거기마다 사용자들마다 상이한 백과사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그 주요 원인이다(Eco, 1984: 109). 그렇다면 실제로 기술될 수 없는 백과사전은 단지 이론적으로 또 추상적

8) 에코는 추론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철학의 전통적 추론 방법인 연역법 deduzione과 귀납법 induzione, 그리고 추정법 abduzione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추정법은 퍼스의 기호관념, 즉 무한한 기호능의 역동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종합적인 추론 방식으로 본다. 이에 대한 에코의 견해로는 Eco (1975: 185~188; 1984: 40~43) 참조.

으로만 상정된 개념이다. 결국 백과사전이란 하나의 '기호학적 공준(公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예코는 '위장된 백과사전'인 사전의 유용성을 인정한다(*ibid.*, 129~34).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백과사전에 어느 정도의 제동을 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사전과 백과사전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의미 표지 또는 특성들에 대한 고찰과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들을 분류하는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의미 특성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사전과 백과사전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 의미 특성들의 성격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백과사전 개념에 도달하였는데, 이제는 역으로 백과사전과 사전의 구별을 위해 의미 특성들의 분류 작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4. 맥락과 의미

의미 특성들 및 그것들의 역동적 메커니즘에 대한 예코의 고찰은 그의 이론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논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용론에 속하는 문제들까지 고유의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미론을 제시하기”(1975: 14) 위해 코드 이론의 대부분을 의미에 대한 분석에 할애하였으며, 『기호학과 언어 철학』에서는 기호와 백과사전 개념을 비롯한 다른 논의들이 거의 모두 의미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다른 저술들 역시 최소한 간접적으로는 의미들의 곡예에 대한 그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기호학과 언어 철학』에서 그는 의미 특성들을 그 성격에 따라 어휘적 의미와 텍스트적 의미, 관습적 의미와 상황적 의미(1984: 64~68)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찰해보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처음에는 백과사전 개념과 직결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역설적으로 의미 특성들의 분류 작업에도 직

용되게 된다. 사전과 백과사전 사이의 궁극적인 차이점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대 백과사전의 대립은 의미와 관련하여 언어학 및 논리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일련의 대립들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앞서 인용된 언어의 인식/세계의 인식을 비롯하여, 필수적/우발적, 주관적/객관적, 판단의 진리/사실의 진리, 의미론/화용론, 분석적/종합적 등의 대립들과 동일한 논의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Violi, 1997: 88). 이 모든 쌍들이 사전과 백과사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 대립들은 그것이 제시된 학문의 성격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점들을 보이지만, 개략적으로 보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관념을 의미 특성들의 구분으로 제한하자면, 분석적 특성/종합적 특성, 개념적 특성/사실적 특성, 속성적 특성/기술적 특성, 필수적 특성/우연적 특성의 대립(Eco, 1984: 130) 등이 될 것이다. 물론 에코는 이런 구분들 자체에 대한 종합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양한 관점에 따른 이러한 분류들을 맥락에 따라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그 유용성과 문제점들을 단편적으로 언급할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럼으로써 의미 특성들을 여러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분류의 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의미 특성들 사이에 일종의 계층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사전의 부분적 조직은 일부 특성을 당연한 것으로, 즉 “일정한 담론의 범위 안에서 위기에 처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담론(모든 맥락)은 몇몇 개념을 ‘평온하게 수용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ibid.*, 132). 이 평온하게 수용된 것들을 전제로 함으로써 사전은 일종의 ‘공감의 영역’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백과사전은 의미 표지들의 무질서한 총체인 반면, 사전은 그것을 가능한 한 계층화된 총체로 줄이고자 한다. 여기에서 에코는 이 사전의 총체가 잠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백과사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전이 기록하고 있는 최소화된 꾸러미의 의미 표지들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평온하게 수용되는 의미 표지들 또는 특성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에코는 '부정 테스트 test della negazione' 방법을 제안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느 한 용어를 부정하였을 경우, 그 안에서 어떤 정보 또는 의미 특성이 삭제되는지 살펴보는 방법이다(*ibid.*, 114~15). 그리하여 "부정 테스트에 저항하는 모든 것은 한 표현에 의해 어휘적으로 전제되는" 것으로(*ibid.*, 127), 바꾸어 말해 언어적 인식으로 고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올리가 제시한 역접 접속사 *ma*(그러나)에 의한 진단 테스트와 일맥상통한다. 이 방법을 통해 어떠한 경우든 삭제하기 어려운 '본질적 특성'과, 맥락에 따라서는 삭제될 수 있는 '유형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여름'의 의미 특성들 중의 하나가 '덥다'라고 한다면, *È estate ma non fa caldo*(여름이지만 덥지 않다)라는 문장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긍정문 *È estate ma fa caldo*(여름이지만 덥다)는 의미적으로 어딘가 어색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이 경우 '덥다'는 '여름'이라는 어휘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것이다(Violi, 1997: 217~19). 두 방법 모두 적극적인 분류 방식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의미 특성들의 공통 분모를 설정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휘적으로 전제되는 특성과 경우에 따라 삭제될 수도 있는 특성 사이의 차이는 대략 내시 의미와 외시 의미의 구별에 상응하며 이것은 사전 대 백과사전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사전에 등록된 의미 특성들, 즉 삭제되지 않는 특성들은 백과사전적 의미 그물을 형성시키는 모태가 된다. "새로운 의미는 관습적으로 기록된 의미와의 대비에 의해 가능해진다"(Eco, 1984: 72). 의미 특성들의 계층화에 따른 이러한 관계를 비올리는 어휘적 의미와 맥락적 의미 사이의 대립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백과사전적 역량과 어휘적(또는 의미적) 역량을 구별하는데(Violi, 1997: 241~42), '의미' 대신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

미의 문화적 성격, 말하자면 의미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정착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⁹⁾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각 개개인들이 주어진 언어와 문화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로 이루어진 역량을 뜻한다.

의미적 역량이란 “마치 공유된 것으로 가정되는” 역량이며, 특정한 언어 형식에 “관습적으로” 연결된 해석들의 전체다. 화자들이 그러한 공통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어적 상호 행위 속에서 마치 그것이 공유된 것처럼 행동한다(*ibid.*, 244). 이것은 명백히 화용론적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올리의 구별은 상당히 절충적이다. 말하자면 구조 의미론을 비롯하여 언어의 내적 구조에 입각한 의미론의 토대 위에는 ‘경험’이라는 화용론적 범주를 도입하여 그 종합을 시도하고 있다. 어쨌든 의미 특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려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맥락을 떠난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코의 말대로 모든 맥락이 “평온하게 수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바로 그것들 위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미화가 가능해진다. 결국 의미와 맥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백과사전적 역량은 한 표현이 구체적 맥락 안에서 드러내는 내용을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맥락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것은 기호학과 언어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인류학·사회학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맥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 상이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작게는 언어적 주변 또는 공 텍스트 *co-testo*로 보기도 하고, 크게는 소통화 과정에 연루된 사회·문화

9) 그렇다고 어휘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의미에서 어휘는 우리 인식 체계로의 접근 체계로 간주될 수 있다. 단어들이란 우리가 기억 속에 축적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들, 코드화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단어들은 인식 구조들에의 접근 코드, 또는 지시체 *indicatore*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Violi, 1997: 87).

적 양상들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에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용어에 대한 에코의 혼란은 『논고』에서 특정한 의미 성분의 활성화를 설명하기 위해 ‘상황적 선택’과 ‘맥락(문맥)적 선택’을 구별하는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¹⁰⁾ 『기호학과 언어 철학』에 따르면 “맥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호 체계들에 동시에 속하는) 표현 연쇄 또는 집단들의 사례token들의 한 부류며, 반면 공텍스트는 그 부류의 한 구성원의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한 사례로서 정의된다”(1984: 66).

이 자리에서 맥락의 범위에 대해 논할 수는 없고, 다만 직관적으로 어느 한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만약 에코의 정의대로 맥락을 사례들의 한 부류로 본다면, 일정한 표현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맥락들의 일정한 유형을 가정해볼 수 있으며, 그 상황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단지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 일정한 맥락적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반복되는 맥락과 그에 따라 다분히 도식적으로 구현되는 의미, 그리고 그것의 해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코는 ‘시나리오 sceneggiatura’ 개념을 도입한다.

에코는 시나리오 개념에 대해 명백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단지 그 경험적 성격만을 지적한다(1979: 79). 근본적으로 이 시나리오 개념은 여러 학문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달리 명명된 개념들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언어학과 인공 지능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틀frame 또는 대본script, 칸트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식schema, 그리고 장면scena, 배경scenario 등의 용어가 지칭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Violi, 1997: 281). “시나리오(는) (가령 파티에 참석하기, 여행을 떠나기 위해 정거장에 가기, 햄버거를 주문하여 먹기 등과 같이) 미리 설정된 행동과 행위들의 도식

10) 이 혼란에 대해서는 Eco(1979: 16)에서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에코는 이후의 작업들에서 맥락에 대해 단편적인 정의를 시도하고 있지만(1990: 268), 그 규모나 범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제시된 바 없다.

들"이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시나리오 는 사회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다"(Eco, 1984: 70~71). 시나리오들은 관습적으로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 코드화 ipercodifica'와 '미달 코드화 ipocodifica'의 바탕이 된다(1975: 188~92). 즉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추정법적 추론 작업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이 시나리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며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크게 보아 일상적 시나리오와 상호 텍스트적 시나리오로 분류된다(1979: 79~84).

그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코드화되었든, 백과사전은 시나리오 형태로 관습화된 내용들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의 추이를 미리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서부 영화에서 보안관과 악당 사이에 벌어지는 결투에 대한 예측이 그러하다. 따라서 시나리오들은 일정하게 반복되는 맥락들의 한 부류를 형성하며, 그 도식성(또는 반복성)은 구체적인 한 텍스트 안에서 재현된 사례의 내용을 거의 즉각적으로 파악하도록 해준다.

5. 텍스트와 백과사전

에코의 작업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진 유일한 테마는 '해석 interpretazione'이었다. 초기의 성공작 『열린 작품』(1965)에서 주장된 '열림 apertura'의 개념 및 그에 따른 이론적 체계화 과정은 텍스트의 해석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정이었다. 이러한 이론적 성찰은 『이야기 속의 독자』(1979)에서 텍스트 기호화 및 그 실제적 적용으로 이어졌다.¹¹⁾ 또한 『해석의 한계』(1990) 그리고 『해석과 과잉 해석』(1992)

11) 이 책에서 분석한 Alphonse Allais의 단편 이외에도 에코가 이론화 과정과 병행하여 분석한 텍스트들은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이스에 대한 분석(1965), 제라르 드 네르발의

은 해석의 끝없는 '표류(deriva)'를 제어할 만한 장치를 찾으려는 시도였으며, 최근의 『칸트와 오리너구리』(1997)는 해석의 주체인 수신자의 인지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그의 이론은 '해석 기호학'으로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그레마스의 '생성 기호학'이 의미(senso)의 생성 경로를 치밀하게 추적하는 것과는 대비를 이룬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에서 끊임없이 원용되는 것은 바로 백과사전 개념이다. "에코의 전망에 있어 백과사전 개념은 의미론, 화용론, 기호학적 분석 및 텍스트 해석학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Cosenza, 1992: 115).

백과사전 개념은 특히 텍스트¹²⁾의 해석 과정에서 그 유용성을 발휘한다. 어느 한 텍스트 안에서 사용된 어떤 표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양한 백과사전적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어휘의 구체적 내용은 그것이 사용된 특정한 맥락 안에서, 바꾸어 말해 텍스트 안에서 실현된다. "의미화는 단지 텍스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텍스트는 의미가 생성되는 장소다" (Eco, 1984: 20).

텍스트와 의미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의미소는 하나의 잠재적 텍스트이며, 텍스트는 한 의미소의 확장이다" (1979: 27)는 약간 과장적인 단언에서 강조된다. 하나의 의미소가 잠재적 텍스트라는 것은, 그것이 다양한 의미 특성들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언제든지 백과사전의 방대한 의미 우주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텍스트 안에서 모든 특성들이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의 화제(topic)에 의해 일부 특성은 '확장되고' 나머지는 '마취된다.' 이 마취된 특성들은 사라지는 것이

『실비』에 대한 분석(VS, 31/32호, 1982), 이언 플레밍의 007 시리즈에 대한 분석(1978) 등을 들 수 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텍스트들의 분석에서 에코는 다양한 백과사전적 지식과 정보들을 동원하고 있다.

12) 에코는 텍스트를 "일관성의 속박으로 연결된 발화체들의 연쇄, 또는 여러 기호 체계들을 토대로 동시에 표명된 발화체 집단들"로 본다(1984: 64). 그러나 텍스트라는 개념 역시 학자에 따라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때로는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텍스트라는 용어의 사용 배경 및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Cavicchioli (1997: 13~23)를 참조.

아니라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과 함께 대기 상태에 있다.

그런데 텍스트 해석에 동원되는 백과사전적 역량은 독자(또는 수신자)의 몫이다. 원래 '게으른 장치'인 텍스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의 '해석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원만한 협력을 위해 독자는 일정한 백과사전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그 텍스트를 다루는 데 필요한 백과사전적 역량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 기준이 되는 것은 그 텍스트 안에 포함된 '신호들 *segnale*'이다. 그러나 이 신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텍스트마다 고유의 전략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그 신호들에 대한 해석 역시 해석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텍스트 기호학은 그 신호들이 무엇인지 설정할 수 있을 규칙을 제공해야 한다"(1984: 110~11).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총체적인 백과사전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또한 그 엄청난 역량의 모델을 세운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이론적으로 상정된 백과사전 개념을 제한하여, 구체적인 한 텍스트가 펼치는 백과사전을 구상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규모를 확정적으로 제한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 언제나 새로운 해석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텍스트가 제시하는 맥락과 상황들은 대부분 반복적이다. 약간은 상투적이고 도식적인 기존의 시나리오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텍스트란 없다. "기록된 상황과 맥락들은 무한하지 않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평균적 역량의 가설에 따라(또는 일정한 공텍스트에 의해 요구되는 역량을 기준으로), 수신자나 발신자의 백과사전적 역량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들이다"(1984: 11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기호학적 공준'으로 제시된 백과사전 개념은 구체적인 텍스트와 관련될 경우 해석을 위한 '규제적 가설'로 전환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해석의 방향을 인도하고 조절하는 가설적 총체를 형성한다. 그것은 무한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가설로 남아 있어야 한다. “백과사전은 하나의 규제적 가설로서, 그것을 토대로 한 텍스트(그것이 길모퉁이의 대화이전 성서이전)의 해석에 있어 수신자는 구체적인 백과사전의 일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은 텍스트 또는 발신자에게 일련의 의미적 역량을 부여하도록 허용해 준다”(ibid., 111).

6. 백과사전의 한계

그러나 백과사전 개념은 나름대로의 한계 앞에 노출되어 있다. 우선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총체적인 백과사전은 현실적으로 재현할 수 없고 단지 이론적으로만 상정된 개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부분적’ 또는 ‘국소적’ 백과사전이다. “따라서 일반 기호학의 관점에서는 총체적 역량으로서의 백과사전을 공준할 수 있으며, 반면 사회 기호학적 관점에서는 흥미롭게도 백과사전의 상이한 소유 층위들, 또는 부분적(집단·무리·부류·인종 등의) 백과사전을 인정한다”(1984: 110).

예컨대 소위 고전적 텍스트에 대한 해설 사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부분적 백과사전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부분적 백과사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코의 말대로 해석이란 텍스트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이끌어내고 빈 공간을 채우는 작업이라면(1979: 5), 그 텍스트가 이상적으로 형성하는 백과사전 역시 ‘열린’ 우주가 되어야 한다. 즉 총체적 백과사전과 마찬가지로 그 규모를 명백하게 설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백과사전의 구성 및 조직을 뚜렷하게 재현하기 어렵다. 예코는 Q 모델로 의미 성분들의 조합과 연결 방식을 설명하지만 그 자체를 백과사전 우주의 내적인 질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예코의 말대로 그것은 바로 우연들의 무질서한 연결로 이루어진 미궁이다. 따라서 백과사전의 모델은

포르피리우스 이후의 나무형 조직이 아니라,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한 '뿌리줄기 rhizome'에 가깝다(1984: 112).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점들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그레마스는 그러한 내재적 질서의 부재를 지적한다. 그는 에코의 백과사전 개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지만, 내재적 질서가 없는 백과사전적 의미 우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한다(Greimas, 1983: tr. it. 120).

또 다른 문제점은 '해석의 한계'를 설정하려는 시도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백과사전의 범위는 무한하게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 백과사전에 의존하는 해석에 어떤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으로 보인다. 고유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 백과사전은 '모든' 해석들을 포괄해야 한다. 그런데도 에코는 올바른 해석과 그릇된 해석을 구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잘못된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텍스트의 임의적인 '사용 uso'이자 '텍스트에 대한 폭력'(1979: 58)이 된다. 아니면 '과잉 해석'(또는 '미달 해석')의 경우로 전락한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구별하기 위한 적극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의 주장대로 단지 소극적 in negativo 방법에 의존하여(1992: tr. it. 65) 그릇된 해석의 경우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딘가 미흡하다는 느낌이다.¹³⁾ 만약 적극적 기준으로서 상식 또는 평균적 인식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사전적 정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백과사전 개념의 유용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의 해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담론 상황에서 빚어지는 모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분명히 백과사전은 특히 텍스트 기호학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또한 기호학의 범주 안에서 의미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제기함으로써 몇몇 유용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13) 이러한 문제점 및 해석의 한계 설정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석과 과잉 해석』(1992)에 실린 J. Culler의 비판을 참조.

다. 만약 의미론이 “의미화의 일반 이론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Greimas, 1979: tr. it. 304)면, 그리고 기호학이 의미화의 일반적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라면, 백과사전 개념은 기호학적 의미론의 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운찬(1998), 「해석의 지평: 움베르토 에코의 텍스트 기호학」, 『이어이문학』 제4집, 한국이어이문학회.

Cavicchioli, Sandra et al.(1997), *Le sirene. Analisi semiotiche intorno a un racconto di Tomasi di Lampedusa*, Bologna: CLUEB.

Corrain, Lucia et al.(1994), *Il lessico della semiotica(controversie)*, Bologna: Esculapio.

Cosenza, Giovanna(1992), “I limiti dell enciclopedia,” in Manetti et al., pp. 115~27.

Eco, Umberto(1962), *Opera aperta*, Milano: Bompiani.

——(1965), *Le poetiche di Joyce*, Milano: Bompiani.

——(1968), *La struttura assente*, Milano: Bompiani.

——(1971), *Le forme del contenuto*, Milano: Bompiani.

——(1975), *Trattato di semiotica generale*, Milano: Bompiani.

——(1978), *Il superuomo di massa*, Milano: Bompiani.

——(1979), *Lector in fabula*, Milano: Bompiani.

——(1984), *Semiotica e filosofia del linguaggio*, Torino: Einaudi.

——(1992),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Stefan Collini(ed.),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 Press(tr. it. *Interpretazione e sovrainterpretazione*, Milano: Bompiani, 1995).

- (1993), *La ricerca della lingua perfetta nella cultura europea*, Bari: Laterza.
- (1994), *Sei passeggiate nei boschi narrativi*, Milano: Bompiani.
- (1997), *Kant e l'ornitorinco*, Milano: Bompiani.
- Greimas, Algirdas Julien(1970), *Du sens*, Paris: Seuil(tr. it. *Del senso*, Milano: Bompiani, 1974).
- (1983), *Du sens II - Essais sémiotiques*, Paris: Seuil(tr. it. *Del senso 2, Narrativa, Modalità, Passioni*, Milano: Bompiani, 1984).
- Greimas, Algirdas J. & Courtés, Joseph(1979),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tr. it. *Semiotica. Dizionario ragionato della teoria del linguaggio*, Firenze: Casa Usher, 1983).
- (1986), *Sémiotique II.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 Greimas, Algirdas J. & Fontanille, Jacques(1991), *Sémiotique des passions*, Paris: Seuil(tr. it. *Semiotica delle passioni*, Milano: Bompiani, 1996).
- Manetti, Giovanni et al.(1992), *Semiotica: Storia, teoria, interpretazione*, Milano: Bompiani.
- Marrone, Gianfranco(1994), "Significato, contenuto, senso," in Lucia Corrain pp. 61~87.
- Ogden, C. K. & Richards, I. A.(1923), *The Meaning of Meaning*, London: Routledge & Paul Kegan.
- Putnam, Hilary(1975), "The Meaning of 'Meaning'," *Mind, Language and Reality. Philosophical Papers*, vol. 2,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 Violi, Patrizia(1992), "Le molte enciclopedie," Manetti et al., pp. 99~113.
- (1997), *Significato ed esperienza*, Milano: Bompiani.